

##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우려

-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-

강명구 (산업은행 조사분석부 부부장)

작성일: 2012년 4월 9일

### ■ 중앙아시아 3국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에 대한 혜택 철폐로 물가상승 우려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알마티시와 알마타주의 전력요금 인상
  -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전력요금을 1kW/h당 11.79텡게(0.08달러, 부가가치세 불포함)를 부과하였으나, 4월 1일부터는 소비자들의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전력 요금 부과
  - 2009년 3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법령 №392 ‘조세율 제한에 관한 법률’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전력요금에 대한 인상이 명시되어 있어 전력 요금 인상이 불가피
    - 전력 요금 인상은 동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유치 및 설비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4월 1일부로 전력요금, 대중교통요금, 천연가스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 인상된 세율 적용
  - 공공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20%이며, 난방 및 온수 요금은 15%, 천연가스는 14% 인상
    - 가장 최근 공공부문 요금 인상은 2011년 10월에 이루어짐.
  - 우즈베키스탄 국영홀딩사(NHC: National Holding Company)인 Uzbekneftegaz가 발표한 천연가스 인상 요금은:
    -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요금은 1m<sup>3</sup>당 94.5썸(Sum)에서 14%가 오른 107.7썸으로 인상
    -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조리 및 온수용으로 공급되는 가스는 10m<sup>3</sup>당 현재 1633.9썸에서 1862.65썸, 난방용 가스는 10m<sup>3</sup> 당 현재 757.7썸에서 863.8썸으로 인상
  - 뿐만 아니라, 타슈켄트 시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인 버스, 트램(노면전차), 노선 택시 등의 요금도 16% 인상한 600썸(0.20달러)에서 700썸(0.25달러)으로 인상
    - 시내 중심가에서 도매시장 이파드롬(И п п о д р о м)간 편도 요금도 800썸(0.29달러)로 인상

우즈베키스탄 공공요금 인상 현황

인상부문	적용 요금
전력	1kW당 97.5숨(0.03달러, 환율은 암시장환율 적용) - 전기오븐: 1kW당 48.75숨(0.01달러)
천연가스	-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: 1m³당 94.5숨(0.03달러)→1m³당107.4숨(0.04달러) -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 · 조리 및 온수용으로 공급되는 가스: 10m³ 당 1633.9숨→1862.65숨 · 난방용 가스: 10m³ 당 현재 757.7숨→863.8숨
온수	-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: 1m³당 1,717.47숨(0.6달러) -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: 1m³당 6,707.12숨(2.4달러)
수도요금	1m³당 199.00숨(0.07달러)

-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되던 운송수단의 연료유 공급시스템을 변경
  - 2012년 3월 중순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드는 ‘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휘발유 및 디젤의 무상 공급에 대한 규정’에 서명함으로써,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되던 운송수단의 연료유 공급시스템을 변경
    -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대통령령에 의해 화물차, 트랙터, 버스에 무상으로 공급되던 연료유인 휘발유와 디젤의 공급을 2012년 하반기부터 중단키로 함.
    - 화물차 및 버스, 트랙터에 대한 연료유 무상 제공 중지는 이들의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연료유를 이용한 운송수단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기인
  -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정부는 모든 운송수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무상 연료를 승용차와 오토바이에만 공급하기로 결정
    - 무상 연료유 제공 기준은 승용차는 1년에 1440리터(월 평균 120리터), 오토바이는 1년에 480리터(월 평균 40리터)를 공급
  - 2008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약 16개의 공공부문에 대한 무상공급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
    - 주요 공공부문으로는 전력, 천연가스, 소금, 일정부문의 석유제품 등

## ■ 각국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기타 부문에 대해서도 가격상승을 초래할 전망

- 중앙아시아 3개국은 공히 공공부문의 가장 기초적인 전력, 가스 등의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나머지 부문의 가격이 인상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
  - 2011년 각국의 소비자물가는 카자흐스탄의 8%, 우즈베키스탄 7%, 투르크메니스탄 5% 상승함.
-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소비수요 위축과 경제성장을 지체시키는

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음.

- 카자흐스탄은 주요 도시의 전력요금 인상은 다른 도시로 파급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, 다른 도시 및 상품에 대한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-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4월 1일 공공부문에 대한 가격인상을 하고 있어 이러한 공공부문의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상품가격의 인상을 초래
-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도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무상공급되던 연료유를 공급하지 않으면, 이와 관련된 각종 부문에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.
-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많은 기초 생필품에 대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은 편임.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를 위해서도 이러한 상품에 대해 시장가격을 도입이 필요함.

#### ※ 참고자료

- В Алматы с 1 апреля повысятся тарифы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
- В Узбекистане с апреля повысят тарифы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
- Тарифы на газ повышаются на 14%
- Утверждены новые тарифы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
-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для водителей груз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отменены льготы на топливо